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8호 [주간 제2622호]

주체 109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음력 10월 1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광산도시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주는 검덕지구의 전변, 삶의 새 러전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로동당시대의 문명창조와 변혁이 태동하는 검덕지구에 광산도시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주는 사회주의선명마을들이 솟아났다.

자연의 대제양으로 모든것이 랑수에 잠기고 돌무지밭에 묻혀 집주인들마저 제 집을 알아볼수 없었던 검덕땅, 흑심한 피해흔적이 력력하던 산악협곡에 지금은 현대적인 문화주택들로 어디 가나 황홀경이다.

단천시 사오동, 선광동, 전진2동, 중산리, 대흥2동, 운천리, 백곡산동, 포거동, 새복동 등에 2300여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원이 번듯하게 꾸려져 검덕지구에 들이닥쳤던 화가 복으로 전환되었다.

검덕땅의 전변은 나라의 맡아들이 로동계급을 아끼고 위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로동당의 걱정과 인민의 아픔을 총성과 애국의 피와 땀으로 도말아 가쳐주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본때가 낳은 귀중한 성과이다.

지난 9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태풍피해를 입은 검덕지구의 복구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하시고 파견할 부대들의 역량편성과 건설기계들의 보장 및 기동,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취해주시었다.

10월의 경축광장의 연단을 내리시는 길로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80일전투기간 총력을 다하여 복구건설을 질적으로 완공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광산마을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한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에 언제나 인민군대를 불러주고 돌격의 앞장에 내세워주는 당중앙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인민군장병들은 검덕전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였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

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인민군대들이 벌인 복구전투는 그대로 난관극복의 분분초초로 이어진 대격전이었다.

수백리 계속마다에 나뭇기는 붉은기의 숲과 굽이치는 불의 대하, 진감하는 돌격의 함성, 방승차, 예술선전대, 군악중대와 소대들의 격동적인 화산선전, 화선선동으로 검덕은 불도가마냥 끓어번졌다.

《땀은 우리가, 향락은 인민이》, 《200%는 성차지 않다》, 《(합격도장)은 인민들로부터》 등의 글발과 위훈창조의 새 소식들로 시간마다 새로와지는 전투속보들, 시간을 다투며 키돋움하는 경정도표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분출시켰다.

공사일정계획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타산하여 세워진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 정해준 시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오늘의 태풍피해복구전투는 곧 조국보위이고 인민보위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닌 군인건설자들은 운수수단이

들어갈수 없는 지역에 단층살림집 한세대를 짓기 위하여 주저없이 블록크들을 등에 지고 가슴에 안고 가파로운 산길을 돌아올랐다.

인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갈새라 발파가 아니라 정대로 바위를 꺼내며 기초를 닦고 그 어떤 폭풍과 큰물에도 끄떡없게 석축을 든든히 쌓아올린 병사들이었다.

산사태에 묻힌 철길로반을 복구하던 나날 돌무지속에서 찾아낸 강냉이이삭들을 보물처럼 모아 200여개나 되는 이삭마대들을 안고 주변농장의 탈곡장으로 찾아온 병사들도 있다.

새로 일떠선 살림집터락에 생겨난 러밭들과 남새배배광주리, 과일나무들은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보위해가는 군인들의 진함없는 사랑을 뜨겁게 전해주고 있다.

이번 피해복구건설대상은 아니었지만 허물어진 집도, 인민들이 체 못지 못한 집도 다 말아 지어주자는 일념에 일떠세운 사오동지구의 《미남자》 7층살림집에

도 군인건설자들의 진성이 깃들어있다.

은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따뜻한 정과 마을이 담긴 위문편지들에서 군인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믿음과 부모형제들의 당부름을 깊이 새겨안고 더욱 분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부름이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폐허나 다름없던 검덕지구의 산짜기마다에 휘황한 새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솟아나고 광산마을사람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검덕지구 피해지역에 훌륭히 일떠선 광산마을들에서는 살림집입사모임에 이어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

별세상과도 같은 새 마을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본사기자



## 국가의 은정속에 솟아난 로동자들의 행복의 궁전

### 신의 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 진행

근로하는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며 행복의 첫자리에 세워주는 국가의 손길아래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훌륭히 일떠섰다.

새로 회한하게 건설된 로동자합숙은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은정속에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생활상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아담한 호실들과 식당, 도서열람실, 청년학교, 문화선전실 등이 꾸려져있는 합숙과 수영장, 운동실,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그쁘히 갖춘 방직원

이 일떠섬으로써 합숙생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었다.

문경덕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과 공장의 일군,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

서도 주체107(2018)년 6월 6일 문경덕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과 공장의 일군,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는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착공의 첫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전투를 벌려 압록강

반에 연건평 2만 9 000여㎡의 로동자합숙을 멋들어지게 완공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날 합숙생들이 도안의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

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사하였다.

합숙생들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베푸는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북받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다심한 은정이 스며있는 로동자궁전에서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방직공처녀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합숙의 창가마다에서 끊이지 울려 퍼졌다.

본사기자





## 빛나는 령정 (2)

# 강력한 자위의 근력을 마련하기

《조선이 당장 75년이 되는 십야에 진행한 열병식은 사람들에게 세계일류급의 군대를 보여 주었다. 조선인민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제 더는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조선에 대해 함부로 무력사용을 떠들수 없게 되었다.》

《열병식은 조선반도를 영토로 전 쟁을 모르는 땅으로 되게 하시 려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역센 의지를 세계앞에 명명백백히 보여 준 계기였다.》

이것은 지난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대한 위 국인들의 반향의 일부이다.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킨 경축 열병식은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 이 얼마나 강한가를 세계앞에 남 김없이 파시한 특기할 사변이라고 할수 있다.

그날 경축열병식에 앞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과 5년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창건 70돐경 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누구나 알수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의 현 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 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불과 4년 수개월,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몇년어 간에만도 공화국의 군력은 더한 층 다져지고 세계가 깜짝 놀라게 변하였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천출명장 의 탁월한 령도를 받은데 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 화국의 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

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는 후 공화 국의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 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 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사상과 신념이 없는 총대는 막 대기만도 못하며 총대에 사상이 결합되면 그 위력은 백배해진다 는것은 력사가 실증해주는 진리 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총7면대총 호정취운동열성자대회를 소집하 도록 하시고 대회에 몸소 참석 하시어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 화, 도덕강군화에 선차적힘을 넣 을데 대한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면대로, 전화의 근위부대들로 만들데 대한 그이의 말씀은 인민 군대내에서 오중총7면대총호정취 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 르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 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 원대회도 몸소 지도해주시면서 군인들속에서 필수5대교양을 품 임없이 심화시키고 혁명전통교양 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사상적정 예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 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여 지고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

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인민군대에서 훈련을 강화하여 모 든 군인들이 그 어떤 전쟁에도 대 처할수 있는 필멸 나는 싸움군들로 준비해줄수 있는데도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어리여었다.

군력강화를 위한 력사적인 회의 들에서, 때로는 요연서린 전투훈 령장들과 전초기에서 총천 병사 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 훈에 대하여 새겨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임의 시각에 임의의 부대, 구분대에 불의의 정황을 주어 실 전준비상태를 료해하시며 군인들 이 군무생활의 하루하루를 훈련 으로서 이어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 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지난 3월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

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실 때 에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쏘 다고 하시며 높이 치하하시고 명 포수상장에 축하전필까지 새겨 주시었다.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도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오늘 공화국은 보총과 원자탄 의 대결이라고 하는 지난 조국해 방전쟁때와는 대비도 할수 없게,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없는 주체식무기들을 그즈흔히 갖 춘 강위력한 군사강국으로 존엄 떨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혁명의 초창기 밀림속의 병기장에서 만들어진 연걸록판이

오늘은 세계가 공인하고 부러워하 는 강력한 화력타격수단으로 발 진되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이 강력한 자위의 힘을 마련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국방과학부문을 위임없이 찾으며 국방과학자들에게 세 기술창조의 열쇠도 안겨주시고 한밤이 지새도록 새 무기조립도 지도해주시였으며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그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 주시었다. 때로는 위험천만한 시 험사격장에도 찾아가시고 새 무 기의 시험발사장면을 보아주시려 고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들 어서시며 화력진지에도 나아가시 었다.

천만식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 진 위대한 아버지의 제일 큰 사

랑은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강대한 힘을 키워주 는것이다. 문명을 자랑하던 나 라와 민족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하여 침략자들의 발굽에 짓밟 히우고 속절없이 사라져버린 홀려 간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힘이 강 해야 국가의 안전과 번영도, 후 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 는 뼈아픈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탁월한 령도와 헌신의 로고로 공화국의 군력을 최강의 높이에 이르게 하신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인민앞에 쌓으신 크나큰 공적의 하나이다.

하기에 10월의 경축열병식을 지 켜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고마 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본사기자 주일봉



## 인민이 바라다면

인민이 바라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둘어에도 꽃을 피우시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인 11월의 어 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 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공사업소를 찾 오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행동저장고들마 다에 차곡차곡 꽂 들어찬 물고기 령동블록들을 기쁨속에 보고 또 보시었다.

인민들과 인민군인들에게 더 많 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마음이 얼 마나 강렬하시면, 물고기가 산갈이 쌓인 그 광경이 얼마나 반갑고 호뭇 하시였으면 찬 기운 서린 저장고를 오래도록 돌아보시며 물고기령동블 로크를 들어보기까지 하시었다.

동행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이 미전에 물고기령동블록들을 보고 금피를 흘려쌓은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이상 적 중한 비유가 없을것 같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오늘날 인민들의 마 음속에 새겨져있다.

금피 되새길수록 가슴 뭉클 찾아들게 한다.

세상을 둘러보면 그 어느 국가수 반이나 령도자도 물고기를 금에 비 거며 그렇듯 귀하게 여긴적이 없다.

오직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심으로 가슴을 꿰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그 물고기령동블록들도 금피처럼 여기신것 아니라.

그뿐이 아니다.

지난 9월 어느날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난날 락후생에 피회까 지 겹쳐 보기에다 처참하기 그지없 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수도 있는 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보편 불수록 아름다운 한복의 그림을 린상시키는 사회주의농촌보 기마을,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락으로 손색이 없이 건설한 살림 집들과 공공건물들이었다.

이날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농촌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신 그이께서

는 이번엔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 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 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 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아 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 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간만에 또 한번 가슴 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 집에 정을 불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며 이 교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라다고 축복하시었다.

그런 순간이면 남모르게 바쳐 오신 천만교생들이 모두 락으로만 여겨지고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 에서 더없는 행복을 찾으시며 삶 의 희열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는분이어서 그 격정의 순간 에도 인민을 위한 더 높은 리상 과 목표를 내세우시며 사회주의농 촌건설의 지철도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사는 인민의 삶은 얼마나 복 된것인가.

장은일

이제 며칠 있으면 이해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된다.

기운이 명하로 떨어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 자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 통한 겨울옷차림으로 달라 지고있다. 그러면서도 자연 마음속에 갈마드는것은 따 뜻한 보금자리에 대한 그리 움이다.

뽀뽀뽀해도 추위를 막 자면 집이 있어야 하고 집 이 따뜻해야 한다.

따스한 집.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군 하는 겨울의 추위이지만 울 해의 추위는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새로운 의미를 실어 다준다.

먼 옛날이 아닌 불과 몇 달전의 일이었다. 폐년에 없 이 겹쳐드는 큰물과 태풍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줄 지에 한지로 내몰았다. 그것

도 한두개 지역이나 마을이 아니라 서해안, 동해안 등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 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면 집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갈마든다.

지금 그들은 따뜻한 집에 서 생활하고있다. 그동안의

수필 **따스한 집**

짧은 몇개월이만에 얼마나 많은 새 집, 새 마을들이 일떠서 온 나라 인민의 축 복속에 새집들이정자가 런 이이 펼쳐져왔는가. 국가에 서 덩실하게 지어준 훌륭한 새 집들에서는 지금 집주인 들이 엄중한 추위가 밀려와 도 우리는 걱정할게 없으며 흥겨운 이야기로 꽃을 피우 고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차 례진 새 집들이던가.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따

뜻한 그 자애의 손길이 있어 큰물피해, 태풍피해를 당한 자마다 군단위원회청사를 비롯한 국가에서 꾸려 준 장소들에서 집집은 설음 을 모르고 지냈고 얼마후에 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훌 륭한 새 집들을 일시에 무 상으로 받아안은 행복도 지 닌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를 당한 인민들이 한지에서 겨울을 나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 며 국가적인 피해복구전투 를 조직하시어 행복의 선경 들을 가는 곳마다에 펼쳐 주시었다. 인민을 더 따듯 한 행복의 보금자리들에 앉혀주시었다.

지켜주는 손길, 보살펴주 는 그 따뜻한 손길이 있어 겨울이 와도 온 나라의 집 집은 따스하다. 유금주

## 위인칭송의 대화원

### —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을 찾아서 —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있는 중 앙식물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외국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올린 선물식물들을 보존, 순화하고

번식재배하는 국제친선식물관 이 있다.

1987년 10월에 창립된 국제친선 식물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900여차에 걸쳐 올린 400여

종의 선물식물들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30여개의 나라 에서 올린 400여종의 선물식물 들이 있다.

선물식물은실, 선물식물구, 선물 과수구에는 선물식물들이 아름다 운 화원을 이루고있으며 조직배양 실에서는 각이한 지역과 기후에서 자라던 선물식물들을 풍토순화하

고 번식시켜 지방의 식물원들과 많은 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꽃은 꽃마다 있는 일마다 모양 새와 향기도 각이하고 그 생태학적 특성도 다르지만 경도와 위도를 넘 어 조선에 뿌리내린 선물식물들에 는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는 만 민의 흠모심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본사전집국은 국제친선식물관 의 선물식물들을 소개한다.

## 선물식물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주제64(1975)년 9월 2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 페즈 알 아사드가 삼가 올린 선물식물이다.

세계자유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던 대통령은 주제63(1974)년 9월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 나보았다.

접견석상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였으며 귀 국후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물 올리기로 생각 하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것이 무엇

이겠는가 하는것을 깊이 생각 하던 끝에 수리아인민이 귀중 한 재부로 일러오는 올리브나 무(감람나무)를 선물로 선정하 고 정성껏 마련하였다.

대통령은 수리아주제 조선대 사관에 선물을 정중히 전달하 면서 수리아인민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을 진정한 스승으로,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끝없이 따르고있다고, 나 는 수리아인민들의 이러한 심정 을 담아 올리브나무를 존경하는 주석각하께 선물로 올리게 된다 고 하였다.

선물식물에는 위대한 수령님 에 대한 수리아대통령과 수리아 인민의 존경심과 칭송의 마음 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국제친선식물관의 선물식물은실

# 판이한 두 제도의 현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자연의 대재앙으로 흑심한 피해를 입었던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편이러 솟아나 인민들에게 새로운 심심과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얼마전에는 폭풍과 폭우로 모든것이 랑수에 잠기고 돌무지밭에 묻혀 집주인들마저 제 집을 알아볼수 없게 되었던 집터땅의 산악형복합주택을 활황한 보급자들이 출몰하게 일떠서 새집들이를 하는 광산마을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별세상과도 같은 새 마을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이 격정의 눈물을 씻으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나라의 곳곳에서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선경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유쾌한 생활을 책임지고 마련해주는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제도와 정책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살림집문제로 나날이 큰 고통과 불안이 시달리고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서울에서만도 집값은 4년전에 비해 몇배나 올랐다고 한다. 주택소유자에게 계약에 따라 금액을 맡겨 놓고 일정한 기간 빌려쓰는

전세주택과 매달 임대료를 내고 빌려쓰는 월세주택도 한해전에 비해 무려 2배나 값이 뛰어들었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주민의 40%이상 이 제 집이 없이 세상에 살아가고있는 청년들이 천정부지로 뛰어들라 일반주민들은 세집조차 얻기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주택가격이 오르자 부동산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부자들은 집을 몇채, 몇십채씩 가지고 부동산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리득을 보고있으며 결과 사회적갈등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고 한다.

청년문제를 보아도 마찬가지로이다.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검

덕 지구과 복복구 전투장과 80일전투로 들끓는 격전장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나라의 자랑으로 떠받들리고 있지만 남조선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의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직업을 한번도 얻어보지 못한 대학졸업생이 28만 7 000여명으로 이는 2014년에 비하여 65%나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40살이 다 되도록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대학졸업생은 2000년 이후 최대이라고 한다.

이로 하여 청년들속에서는 지금 할수 있는것이 전혀 없

## 생존권쟁취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최근 남조선의 어느 한 항공사 노동자들의 해고반대 투쟁이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2007년에 민용항공업체로 설립된 이 항공회사는

올해에 들어와 악성비루스전염병사태로 고객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있다 한다. 그 여파로 회사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해고로동자

들은 회사측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들고일어났으며 지난 10월 중순부터는 《국회》청사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이러한 속에 지난 17일 민주로총과 정의당, 천주교와 불교 등 각계계 단체들로 구성된 이스라엘항공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이날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

라엘항공 정리해고철회와 운항재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을 선포한 각계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회사측의 정리해고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해고된 로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그리면서 책임있는 주범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이를 헌 당국과 집권여당을 공격하는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최근 남조선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각종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검찰결과를 발표하고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것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사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당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직무정지조치를 당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이고 부당하다.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있고 대검찰청에서는 직무정지리유로 제시한 6가지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한편 이 문제로 여야당사이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국회》가 대혼란상태에 빠져들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검찰총장의 부정부패혐의는 총격적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조치와 관련하여 격화되는 갈등과 대립**

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당내의 증진의원들도 개별적관사에 대한 불법사찰은 탄핵사유로 볼수 있다. 긴급《국정》조사 및 특별조사

를 실시하여 검찰총장의 부정부패혐의를 깨끗이 밝히고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그를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당의 거부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검찰총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대검찰청에 집단적으로 물러가라는 추대로 부리었다고 한다.

결국 여야당의 치열한 대립으로 예정되었던 다음해 예산안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개정안》심의를 비롯한 일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국회》일정들이 뒤죽박죽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힘》 내부가 자체의 갈등과 대립으로 복잡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동남권선공항》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팡질팡하고있다고 한다.

김해국제비행장확장계획이 백지화되자 부산시는 환경림장문을 발표하면서 《동남권선공항건설계획》을 신속히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립장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가덕도에 선공항을 건설하는것이 옳다고 하면서 《부산 가덕도 선공항특별법》까지 발의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대구, 경상북도의 의원들은 김해선공항이 부적합하다면 밀양에 공항을 짓는것이 합리적대안이라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혼신한다

최근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일본의 오만무례하고 과렴치한 망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문제, 독도문제 등에 대한 역사외국과 무분별한 무력중간책동으로 제철야망을 숨기지 않고있는 일본이 강제징용문제에서도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인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나고지선처럼 최근 남조선의 정보원 원장과 남조선일본의원령소속 남조선의원들이 편이러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과거사문제, 당국자회담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거기에서 일본은 남조선이 제기한 당국자회담에 대해 과거 일본의 강제징용문제를 앞세우면서 저들이 수용할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남조선법원이 내린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리행하지 않는다는 《화약》이 있어야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일본자민당의 한 인사도 《선정용해결 후관계정상화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고지선은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고 하였다는것이다.

일본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남조선측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있다는 일본고위당국자의 불만을 인용하고 남조선이 압수한 일본기업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일본정부가 강력한 대항조치를 취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2015년에 날조한 일본군성노예합의서를 남조선이 《백지화》한 실례를 들어 이번에는 《공제제안할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남조선측이 정리된 배상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도쿄를 회담에서 당국자 사이에 만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일본은 이런상태라면 당국자의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립장이라고 보도하였다

한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도적이 도적이 아니냐 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도리어 남

조선에 대한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량곡뿐아니라 공예작물까지도 략탈하기 위하여 미친듯이 날뛰었다.

공예작물략탈에서 일제가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것은 목화였다.

1912년 일제의 조선총독이라는자는 소위 《문화장려에 관한 훈시》라는것을 떠벌렸으며 이에 따라 그해에 《문화장려 제1차계획》을, 1919년에는 《문화장려 제2차계획》이라는 략탈적인 방대한 《문화장려 제3차계획》이라는것을 내놓은 일제는 경찰폭력기구가 지원하여 조선농민들에게 목화를 강제적으로 심도록 하였다.

1920-1921년 세계를 휩쓴 경제공황은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그대로 일본산업의 중요한 원료인 목화는 칙락전쟁수행을 위하여 매우 필수적인것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목화수요를 원료를 국내에서 보장하

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되었다.

그런데 경제공황까지 들이닥쳐 일본의 면방직공업은 파국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우기 칙락적인 대외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여달리는 일본에 있어서 면방직업의 원료인 목화는 칙락전쟁수행을 위하여 매우 필수적인것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목화수요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

일본은 조선사람들을 흑사시켜 목화 등 공예작물을 마구 략탈해갔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흑사시켜 목화 등 공예작물을 마구 략탈해갔다.



박호남

##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보안법》 폐지요구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안법개정안》을 상정하였다고 한다.

상정된 《개정안》은 《찬양, 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한다.

이 《보안법개정안》을 발의한 여당원은 《제7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보안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보안법의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되었는지 지켜볼 일

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연합뉴스》는 《민족화해협력법국민회의》(《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보안법은 남북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칼날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민간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중 하나를 보안법폐지 또는 개정으로 삼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8월에는 남조선의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민족통일대국청년회》 등 청년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청년연

대》 상임대표는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민족모두가 보안법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과거 민주를 꿰뚫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했다. 분단적폐는 여전히 서늘푸른 칼날을 세운채 평화통일목소리를 가로막고있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민족통일대국청년회》 대표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이 보안법폐지를 비롯한 4대개혁법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오히려 적폐세력이 결집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서 《21대 국회 민변출신과 80년대 민주화운동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보안법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국민의힘》 전체가 혼돈에 빠져들었다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힘》 내부가 자체의 갈등과 대립으로 복잡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동남권선공항》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팡질팡하고있다고 한다.

김해국제비행장확장계획이 백지화되자 부산시는 환경림장문을 발표하면서 《동남권선공항건설계획》을 신속히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립장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가덕도에 선공항을 건설하는것이 옳다고 하면서 《부산 가덕도 선공항특별법》까지 발의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대구, 경상북도의 의원들은 김해선공항이 부적합하다면 밀양에 공항을 짓는것이 합리적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해선공항 검중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림장문을 통해 당국의 백지화결정은 경상도민심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하면서 당지도부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나서고있다고 한다.

《동남권선공항》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산, 경상남도지역과 대구, 경상북도지역사이의 갈등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어디라고 확정된것이 없다. 당내갈등이 아니라 지역간 의견이 서로 다른것으로 봐야 한다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국민의힘》 전체가 혼돈에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전 보수 《정권》의 당국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사과》문제를 놓고서도 당내부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중에 야당소속 두 전직당국자문제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의 일부에서는 《국민의 마음은 일기 위해서라면 한번이 아니라 열번, 스무번도 사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하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당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할만큼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당대표를 선출하여 그때 당대표가

당내의 의견을 모아 사과해도 늦지 않는다. 사과보다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대해나서고있다는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와서 사과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없지는 않다. 반대의견도 내부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국민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남조선 민심은 정색현안에 대한 당론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지도부가 왜 필요한가, 학교 학생회 지도력도 이보다는 낫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호남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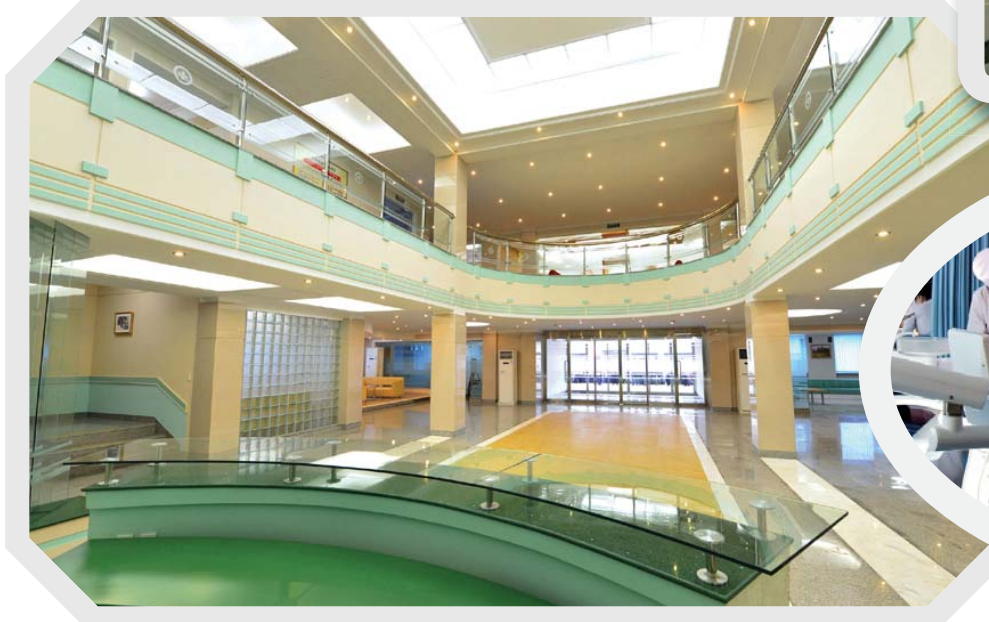
본사기자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류경치과병원

◇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류경치과병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병원터전도 잡아주시고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었으며 병원건설의 전 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삼복철의 무더위와 비내리는 곳은날도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건설과 운영준비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주체102(2013)년 9월 23일 완공단계에 이른 병원을 또다시 찾으신 그이께서는 병원을 아담하게 건설했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몸소 병원이름도 지어주시었다.



◇ 개원후 지난 7년동안 류경치과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수백건의 앞선 치료방법들이 확립되고 치료효과를 높여주는 치과재료들이 새롭게 개발되었으며 의료기구들과 의료용소모품들이 창안제작되어 환자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만도 미세입플란트에 의한 부정교합치료와 국내원료에 의거한 광물성삼산화물용접체를 연구개발하고 그것을 치수복합체로 환자치료에 이용하고있다. 또한 병원정보체계를 완성하여 병원경영관리운영의 정보화수준도 한층 더 높였다. 《치과교정진단과 치료》를 비롯하여 나라의 의학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도서들이 집필편찬되었다. 이 과정에 수십명의 학위학석소유자들이 배출되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우리 곡창, 우리 씨름

대동강식료공장에서 만드는 명주



대동강식료공장은 조선의 명주, 국주를 생산하는 식료공업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발효법에 의한 술제조방법을 발전시켜왔으며 고려시기부터는 쌀에 누룩을 넣어 술을 빚어왔다. 공장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술제조방법과 세계적인 유명 술제조기술을 결합하여 25% 평양소주와 30%, 40%의 평양주를 만들어내고있다. 평양소주와 평양주는 깨끗하고 순하며 감칠맛, 상쾌한감을 주는것이 특

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4(2015)년 6월 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소주를 국주로 정해주시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 술혁신운동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시켜 위생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공기식원료이송 및 먼지분리장치 등 수백건의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식품안전관리체제인증을 받았다. 본사기자

부들의 교육현장을 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2)

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교육자이다. 몇해전 과학과 기술이 앞선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교육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그 나라에서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둔화되고있는데 그 이유인즉은 이러하다.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버는것과 고등학교만 나와서 돈을 버는것을 타산해보면 고등학교만 다니는것이 월등하게 리롭기때문이라는 경제적타산이 크게 작용하고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 젊은이들의 세계관이 왜 점점 이상해져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회주의조국의 교육제도와 현장을 편담해본 나는 그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아닌 교육제도와 나아가서 사회제도에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사람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가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

적범위에서 그것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600만 명이 달하는 24살미만의 청소년들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어들어오는 학비때문에 학교문제로도 가보지 못하고 있으며 해해 고등학교 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제한조건이 많은 형식적인것으로서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있다.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의 형태가 발전하면서 위성통신과 인터넷에 의한 원격교육이 광범히 적용되고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상업화와 리윤추구에 목적을 둔것이지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자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전적으로 맡아 키워주는 교육제도와 그

것을 보호하는 사회제도가 아니라면 그들의 희망과 포부가 높아질수록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에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과 내가 본 조국의 교육현실을 알려주면서 당신네 나라는 지금은 발전한것 같지만 미래가 없다. 하지만 공화국의 교육제도는 그 력사와 전통부러가 다른 나라들과 엄격히 구별된다. 참다운 미래가 있는 나라는 사람중심의 사회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조선사람이 된 공지가 얼마나 부듯했는지... 주석님께서 교육체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공화국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손길아래 사회주의교육체제를 빛나게 실현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훌륭히 건설하여왔다. 위대한 주석님의 뜻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더진다고 하시며 나라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교육체제발표후 각급 학교들이 늘어나고 초등 및 중등교육체제와 고등교육체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가 더욱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수재교육체제까지 확립되어 전체 인민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이 그르히 마련되게 되었다. 교육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되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육양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오늘 조국의 교육제도는 또 한분의 위인에 의해 새로운 전진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세계 교육혁명의 새시대이다. 재중동포 김영란

시초 한 녀의사의 수기 (3)

김영일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생활의 흐름속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만남도 있다고 하더라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뜻밖이었지만 필연이었다 그와 나는 인민을 위한 보건의사업의 한결을 가기에

우리 동총합진로소에 새 소장이 왔다 머리회색한 나를 보더니 무작정 나의 손을 잡고 반가워한다 의사선생님 나를 모르겠는가 하며

의아해하는 나를 보며 말한다 세거리중학교 3학년 2반의 《애꾸러기》란다 순간 나의 눈앞에 떠오르는 한 소년의 모습 그가 벌써 이렇게 컸던가

정말 애꾸러기였다 어린시절의 소장선생은 학교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학생은 그 한명 내가 밤늦게 찾아간 곳은 그의 할아버지 집

나라였던 시절 병들어 병원에 찾아가도 돈이 없다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이녀석 너는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고 피해다녀 할아버지 손자에게 하던 그 꾸지람

그날 할아버지는 말했다 1945년 12월의 어느날 밤에 있는 사연 모든것을 령으로 시작하는 나라사정 곳곳에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재정문제였지만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 방역사업비를 첫자리에 놓아주셨다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조국이라는 범주는 크고크지만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의 기쁨과 행복이 조국과 련결되어있음을 다시한번 느꼈다

오늘도 그런 애꾸러기는 있다 그러면 우리 소장선생과 나는 그들을 찾아 밤길도 즐거이 걷는다 건국의 첫 기쁨에 아로새기신 수령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안고 예방사업에 우리 한생을 바치자고 이야기 하며

잠수물 - 보통강약수

《몇년동안 소화장애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 물을 마신지 보름후부터는 점차 아픈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훌륭한 약수를 다시 찾느라 애쓴 봉사자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옆집사람한테서 보통강약수에 대한 말을 듣고 한 20일정도 마셨는데 소화기가 편안해졌고 입 주변에 있던 염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물입니다.》 《보통강약수를 마신지 몇달 잘되었는데 자주 헛배가 차서 하루종일 기분나쁘던것이 없어졌습니다. 집식구들도 보통강약수만 마십니다. 장수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통강약수를 먹으니 소화가 잘되고 입맛이 당겨 정말 좋습니다. 피부병에도 좋습니다. 보통강약수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효과를 보았으면 합니다.》 ... 보통강약수를 즐겨 마시는 단골손님들이 남긴 글의 일부이다. 소문을 듣고 보통강약수

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약수의 효과를 실지로 느끼고 있는 이 약수리의 《단골》들이 되었다는게 이곳 봉사원의 설명이다. 시생대로부터 신생대에 이르는 여러 지질시대에 형성된 각이한 암석층을 거쳐 나오는 보통강약수는 약알카리성으로서 염소, 수소탄산, 나트륨이온을 비롯하여 인체에 절실히 필요한 칼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히 들어있다. 특히 약수에는 희유금속들도 포함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약리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보통강약수는 만성위염과 만성소대장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피부

성질병치료에도 좋다고 한다. 최근에는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신기한 약수로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



밝은 미래, 어두운 래일

지금 공화국의 피해복구전투, 공장과 협동별, 중요대산건설장들과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한 오늘의 80일전투장 그 어디에서나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공화국의 청년들이 서있다.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이 터치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며 강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치솟고있다. 《동무들, 우리가 여기서 물리서면 피해복구전투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다. 기어이 난관을 뚫고나가자!》, 어느 한 피해복구지역에서 울린 청년들의 웨침이다. 150여㎡의 돌을 채취하여 여러개의 임시다리를 성과적으로 건설, 140㎡의 석축과 수심리구간의 파괴된 도로를 복구.

8.28청년돌격대 제1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걸터지주 피해복구사업에서 단 며칠동안에 이룩한 성과의 일부이다. 각지의 청년건설자들이 피해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인민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반기듯 눈물로 맞이하였고 그들이 자연의 재난이 휩쓴 곳마다에 하늘이 내려왔어도 무너지지 않을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선경을 꽃피우고 떠날 때에도 눈물속에 웃음속에 배배주었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눈물과 웃음, 그것은 인민의 아들딸, 강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미더고 담차고 역세게 키워낸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공화국의 청년들은 이렇듯이 땅 어디서나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앞장서서

써나가며 나라의 기둥감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나라의 앞날을 보려면 청년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세계에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를 놓고 대국이라 으시대는 나라들도 있고 발전된 경제력이나 군사적힘을 자랑하며 강국이라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도 그늘진 얼굴은 가리우지 못하고있으니 그 하나가 사회의 골치거리로, 난문제로 되고 있는 청년문제이다. 일본의 청년실태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할 일이 없고 하고싶지도 않다.》, 이것이 대다수 일본 청년들의 인생관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자유계약과 아르바이트(파외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세대,

《은둔형외톨리》로 불리우는 《히키코리》세대,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니트》족, 이것이 자유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평하였다. 이렇게 사회에 활력을 주고 미래의 담당자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타락과 방랑, 폐품과 절망에 헤매이다 못해 나중에는 극단한 개인주의, 인간중요에 빠져 살인을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의 주역이 되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청년문제는 사회의 골치거리, 사회의 악으로 비난을 받고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분의 1이상이 자기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있는데 대해 절망감을 표시하였다. 태를 묻고 자라난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청년들도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청년들의 모습에는 나라의 오늘뿐아니라 미래도 비껴여 있다.



기적과 창조의 불길을 지켜올리며 조국과 인민의 자랑과 긍지로 불리우는 공화국의 청년들과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 서로 다른 그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와 자본주의의 어두운 래일을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 대성산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 천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문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는 평양의 대성산유취장의 한 북판에는 하늘로 치달아오를 듯 건뚫 쳐든 추녀를 받들고 선 웅장한 대성산성 남문이 있다.

우리는 대성산의 수려한 풍

치와 민족적정서를 한껏 돋구어주며 소문봉과 주작봉사이의 평지에 틀지게 들어앉은 남문을 돌아보았다.

리일심연구사는 우리에게 고구려에서 대성산성의 서남쪽돌짜기방향의 방위력을 강

화할 목적으로 성벽을 두겹으로 쌓고 성문(남문)을 배치하였는데 이 남문이 당시 대성산산성의 20여개 성문 가운데서 제일 크고 든든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높이가 19.5m나 된다는 남

문은 웅장한 자태와 높은 건 축기교를 갖추고 있었다.

든든하면서도 안전하게 쌓은 축대며 그 량쪽에 잇달린 적대 그리고 축대북판에 ㄱ형으로 낸 문길...

문길을 지나 계단을 올라

서 돌문을 열고 문루에 오르니 화려한 남문의 내부가 안겨왔다.

굵직하게 세운 배부른 기둥은 불수목 굳건하고 모서리부분에 세운 4개의 기둥들이 곧추 뻗어올라 2층 기둥까지 걸고있었다.

고구려의 무늬기와를 올린 우진각형식의 지붕이며 붉은색의 두리기둥, 아담하고 참연한 단청무늬 그리고 창문에 어울리게 특색있게 형성한 평판방안쪽에 그린 단청그림들...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남문의 모든것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대성산성 남문의 역사는 천수백년을 헤아린다고 한다.

한때 강력한 요새를 이루었던 남문도 오랜 세월의 이끼속에 빛을 잃고 역사기록에만 남아있었다.

공화국의 옹바른 민족유산보존정책과 대성산에 펼쳐진 전변의 새시대와 더불어 남문은 오늘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있다.



### 다종다양한 국내산 식료품들

—대성백화점에서—

인민을 위한 종합봉사기 지인 대성백화점에서는 공화국의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한 갖가지 식료품들을 봉사하고있다.

《금집》, 《선홍》, 《경홍》 등 공장, 기업소들의 상표를 단 식료품들은 맛도 좋고 포장도 잘되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식료품의 가지수와 형태 또한 다종다양하다.

개성적인 맛과 모양을 가진 과자와 빵들, 신덕쌀물, 통약산생물, 대성산생물 등 각종 생물이 있는가 하면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다양한 음료들도 적지 않다.

이곳 백화점의 문경회부

원은 국내산 상품에 대한 손님들의 호평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생산한 제품의 질이 날을 따라 개선되어가고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사화

## 최무선이야기 (6)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이 봉건사회의 기본모순을 해결할수는 없었으며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수도 없었다. 더욱이 신분의 극단적인 정치는 많은 세신대중에게 극도의 미움을 사지 않을수 없었다.

일단 민심을 기반으로 수습한 경효왕도 다시 세신대중의 편으로 기울어졌다. 신돈은 결국 그들에게 참살을 당하였다.

이러한 때에도 최무선의 화약연구는 계속되었으며 곤난한 형편도 완화되지 않았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울 때 량반귀족들은 나라방비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개인리익에만 눈이 어두워있었다. 그 당시 최무선의 화약연구사업은 조정의 방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소의 대상으로 되었다.

지어는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나라가 이런 형편에 화약을 만들어 무엇하나?》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들은 변변치 않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연구에만 골몰하고있는 그가 몹시 딱해보

였던 것이다.

그럴 때면 최무선은 별로 분개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하였다.

《무얼 하더니, 왜적을 물리쳐야 하지.》

《어보게, 화약이 그렇게 많은 병마를 당해내는 힘이 있다면 화약을 가진 원나라가 왜 주인장의 봉기군한테 망했단 말인가. 공연히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한생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 가는대로 살게. 그게 원가. 자네가 지나가면 인젠 아내네들까지도 대문밖으로 내다보며 웃는다네.》

그러나 최무선은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않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웃을래면 웃으라지. 남의 것보다 더 좋은 화약만 만들면 될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 만 나야 남의 나라를 침노하여 많은 령토를 얻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방위하자는 것이냐. ...》

이와 같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드디어 최무선은 훌륭한 화약을 만들어내는데 성

###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 김시습과 《사유록》

김시습(1435-1493)은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지었다.

그는 후세에 《생6신》의 한사람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는 평안도일대를 려행하면서 창작한 시들을 묶은 시집 《랑유관서록》과 강원도를 려행하면서 쓴 시집 《랑유관동록》, 전라도지방을 려행하고 쓴 시집 《랑유호남록》을 내놓았다.

그후 경주의 금오산에서 거의 6년동안 있으면서 시작품들을 정리하여 《랑유금오록》을 묶었다. 《랑유관서록》, 《랑유관동록》,

《랑유호남록》, 《랑유금오록》이 4권의 시집을 《사유록》이라고 한다.

김시습의 시작품들에는 15세기 후반기 날로 격화되어가던 사회적모순이 시적 화폭으로 재현되어있으며 봉건관료정치에 항거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한자시 《산골농민의 고생》, 《농부의 향의》 등은 농민들의 불행과 고통, 량반관료들의 온갖 착취행위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감정을 반영한 대표적작품들이다.

### 속담과 뜻

◆ 듣는것이 보는것만 못하다.  
무엇이나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땀먹고 말먹고 동지 떨어 불뎀다.  
한가지 일을 하여 두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눈코틀새(가) 없다.  
정신을 차릴수 없게 바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람들의 얼굴도 밝았다.

최무선은 안해의 얼굴에서 잔주름이 훨씬 더 많아진것을 보았다.

은 가족이 침식을 잊고 지내온 몇년어간에 어느덧 늙어버린 안해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최무선은 안해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있소.》

그는 다정한 음성으로 말하고 대걸로 향하였다.

화약을 썬 보자기를 짚어지고 정중하며 따라가는 들

### 역사유적

## 런무리2호무덤

자강도 초산군 런무리에 있는 고구려 초기의 무덤을 말한다.

고구려의 돌각담무덤가운데서 처음으로 발견된 네모서리에 돌출부분이 있는 무덤이다.

유적은 초산을 서북쪽의 압록강 왼쪽기슭에 펼쳐진 벌가운데에 있다.

이 무덤은 기단이 없이 막돌을 쌓아 올려 만든 무기단 돌각담무덤이다.

무덤무지는 흙과 모래로 일정한 모양을 만든 다음 그우에 10cm안팎의 작은 것으로부터 40cm정도에 이르는 각이한 크기의 막돌로 쌓아 만들었으며 맨 겉면에는 20~50cm의 비교적 큰 돌들을 올려놓았다.

무덤무지의 맨 바깥 아래단에는 큰 돌들을 띠어 놓

## 여성들속에서 인기



공화국의 여러 화장품개발생산단위들에서 생산된 각종 화장품들이 여성들의 호평을 받으며 날이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있다.

평양제1백화점의 화장품매대들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해주고있다.

화장품은 여성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기에 화장품매대에는 늘 너성들이 붐비고있다. 그들은 저마끔 자기의 기호에 맞는 화장품들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여성들속에서 제일 인기를 끄는것은 역시 《은하수》와 《봄향기》 화장품들이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은하수》 화장품은 개성고려인삼살결물, 물크림과 같은 일반화장품들과 염색약을 쓰지 않고도 몇분

이면 머리칼을 까맣게 물들이는 염색크림이며 눈주위, 입주위, 목부위에 따르는 각종 미백미안막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가지수가 수없이 많은데 국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화장품만 해도 30여가지나 된다.

그러나 하면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봄향기》 화장품들은 피부를 윤기나게 하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며 미백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여성들속에서 류다른 인기를 끌고있다.

피부영양강화에 효과적인 천연재료들로 제조한 《봄향기》 화장품들은 강한 보습작용으로 피부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잔주름을 없애며 피부의 세포재생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

한편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40여종의 희귀한 천연식물추출물들을

배합함으로써 피부의 탄성을 높여주고 보습, 미백효과가 뛰어난 《금강산》 화장품들을 비롯하여 여러 화장품개발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화장품들도 여성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질 좋은 화장품들이 너무나 많아 어느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화장품들을 쓰니 부작용이 전혀 없다. 역시 우리의 화장품이 제일이다.》...

우리의 화장품이 제일! 여성들 누구나 스킨케어에 애를 쓰는 이 말속에 국내에 흔한 천연재료들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다종다양한 화장품들을 경쟁적으로 개발생산해내고 있는 공화국의 화장품공업의 발전면모가 그대로 비껴있다.

본사기자



아 렬을 지었다. 무덤의 평면구도는 세면이 직선이고 서남쪽 한면만은 무너져내린 탓인지 곡선으로 되어있다.

외형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매 모서리마다에 돌출을 깔아놓은 일정한 면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 무덤의 규모는 남북길이 28m이고 동서너비 16.5m

이며 높이는 2.5m이다. 무덤의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좀 치우쳐 길이 3m, 너비 1.2m의 무덤파이 있었으며 그안에서 뼈주술, 청동제품, 유리조각, 용도를 알수 없는 원통모양의 흙제품, 질그릇조각, 쇠덩어리 등의 유물과 노루, 소, 돼지의 뼈가 나왔다.

본사기자

### 한글들

## 개성무우찜



무우에는 고혈압, 변비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음식물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무우를 찜할 때 생기는 수용성의 펙틴은 과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리담작용을 한다.

또한 무우에 풍부한 리그닌은 발암억제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무우는 고혈압, 동맥경화, 대장암, 변비 등을 예방할수 있다.

이러한 약효가 있는 무우로 료리를 해먹으면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우 400g일 때 돼지고기 300g, 소고기 300g, 닭고기 300g, 밥 100g, 대추 50g, 은행 50g, 잣 10g, 닭알 1알, 깨소금 10g, 간장 100g, 참기름 20g, 사탕가루 50g, 다진 파 10g, 후춧가루 1g, 물 100g을 준비한다.

무우는 채로 썰어 살짝 데친 다음 물을 짜낸다.

다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는 얇게 저며 양념으로 재웠다 살짝 볶는다.

고기와 대추, 밤, 은행을 무우에 섞은 다음 깨소금, 간장, 참기름, 사탕가루를 두고 서서히 끓여서 삶은 닭알과 잣을 가운데에 얹어낸다.

본사기자

### 유익한

## 식성대로 찾아먹게 놓아라

《머느리는 시아버지의 머느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예로부터 시아버지는 머느리를 교와 하였다.

《예, 아버님, 제가 그만...》

《음, 이다음에는 내가 식성대로 찾아먹을수 있게 따르도록 하여라.》

새색시가 민망하고 송구스러워 어쩔을 모르는데 시아버지가 인자한 음성으로 머느리를 불렀다.

《예, 아가.》

《음, 이다음에는 내가 식성대로 찾아먹을수 있게 따르도록 하여라.》